

데이브 매튜슨 박사, 요한계시록, 9강,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9회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24장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조사한 네 가지 옵션 중에서, 역대상에 나오는 24반열의 제사장을 모델로 한 천사들, 천국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되거나 옮겨진 하늘에 있는 교회 등이 그것이다. 4-22장에는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늘 대표자인 24장로와 하늘 궁정에 속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정확히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1번과 3번의 조합, 어쩌면 4번까지의 조합에서 4번, 즉 하늘 법정에 대한 개념, 특히 이사야 24-23장에 있는 장로들에 대한 언급과의 연관성을 제외하기가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천사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4장과 5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반전도 있습니다.

그것은 흥미롭고, 이것은 우리가 24장로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마 세계의 맥락에서 황제를 묘사하는 일부 이미지와 문헌에서 황제는 종종 릭토르를 동반한 것으로 묘사되거나 가장 가까운 것은 기본적으로 경호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종종 릭토르나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특정 연회나 공개 행사에 참석하거나 장소를 가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에는 종종 그와 동행하는 릭터가 2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종종 이 릭토르들을 따라갔고, 도미티아누스가 게임이나 다른 행사를 주관할 때 종종 그는 흥미롭게도 황금 왕관을 쓴 것으로 묘사된 사제들과 동행했습니다. 실제로

소아시아의 또 다른 문헌에는 황제 숭배를 주관하는 사제, 즉 황제 숭배를 담당하는 사제들도 금관을 쓴 모습으로 자주 묘사된다.

그렇다면 요한이 24개 계열의 제사장이나 하늘 의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하늘 대표자인 천사 존재라는 구약의 배경과 관련된 이미지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배경을 반영하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황제의 통치라면, 그 신은 실제로 도미티아누스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장에서 다시 이것은 더 많은 연료가 되며, 4장의 반제국적 불에 더 많은 연료를 추가합니다. 신은 도미티아누스와 비교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신과 비교되고 있으며 도미티아누스의 통치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가이사에 의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가이사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가이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서툴게 패러디하거나, 가이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서툴게 모방하여 가이사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과 가이사 사이의 갈등,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더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대인 배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리스-로마 배경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이제는 카이사르와 정반대되는 그의 주권을 예배하고 인정하는 천사들의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그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흥미롭게도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고도 4장과 5장의 전체 장면이 다시 한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4장과 5장이 의도적으로 에스겔 1장과 5장의 하늘 보좌실을 모델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2장과 이사야 6장. 동시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알려진 로마 세계의 궁정 장면과 대조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기사로 시작하여 Word Biblical Commentary 시리즈의 주요 주석으로 끝나는 일련의 작품으로, 첫 번째 권은 4장과 5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David Aune은 4장과 5장에서 발견한 내용의 대부분이 다음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Aune이 Caesar가 그의 왕좌에 앉았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로마 세계의 법정 장면에 대해 알고 있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릭토르나 성직자들처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왕좌에 앉은 가이사에게 큰 소리로 찬양과 환호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패러디하여,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 앉아 그의 추종자들, 그의 친구들, 그의 궁정에 둘러싸여 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환호의 말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이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보좌는 가이사의 보좌를 패러디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의 보좌는 패러디이고, 빈약한 패러디이며, 하나님의 보좌 중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여기서 분명히 반제국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요한은 아마도 구약의 이미지와 그리스-로마의 이미지를 모두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 궁정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그를 경배하는 하늘 보좌실의 장면을 구성했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적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보좌를 둘러싼 주변 부분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유리 바다 또는 유리 바다에 대한 언급입니다. 4절부터 다시 시작하여 보좌 주위에는 24장로가 앉은 네 개의 다른 보좌가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 등이 번쩍었다.

보좌 앞에는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일곱 영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곱 영이 아마도 하나님의 일곱 가지 영을 나타내고, 일곱 별도의 일곱 영이 아니라 일곱 영이 완전함과 완전함의 상징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사실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이 유리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유리바다는 성전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 성전의 대야나 물두멍을 상징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 유리 바다는 에스겔 1장의 보좌 환상에 대한 에스겔의 묘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특징을 다시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1장과 22절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요한은 심하게 의존적입니다. 특히 에스겔서 1장과 2장에서는 요한이 본 환상인 4장과 5장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1장과 22절에서는 1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그룹은 생명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이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궁창처럼 보이고 얼음처럼 빛나며 놀라운 것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창공에 대한 이 환상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유리 바다와 비슷할 수도 있고 그 원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만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발견되는 성전 이미지를 고려하면, 이 왕좌의 방 장면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솔로몬 성전에 있는 분지의 배경은 확실히 적절한 배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스겔서 1:22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짝이는 창공은 요한이 보는 것의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가능한 배경은 홍해인데, 나는 그것이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도 역할을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5장과 2절에서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천국에서 15장부터 시작하여 성도들이 승리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절, 내가 하늘에서 또 다른 큰 이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일곱 마지막 재앙을 가졌으니 슬프도다. 이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났음이라. 2절을 들어보니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4장에 보면 불을 섞은 자들이 바다 가에 서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금을 들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종. 그래서 15장에는 성도들이 악의 압제와 사탄과 짐승과 압제적인 로마제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서 행한 것 같이 승리하여 서고, 이스라엘 자손 같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또한, 4장에 있는 이 유리 바다도 홍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의 요점은 아마도 간단히 말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자주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출애굽기 기록에서도 바다는 종종 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중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것이다. 바다는 악마가 나오는 심연, 악이 나오는 심연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바다는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 죽은 자의 집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온갖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유대 문헌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러 오는 바다 괴물의 집이라.

따라서 4장에서 이미 발견한 것은 혼돈의 바다이고 악은 이미 잠잠해지고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의 바다는 이미 잠잠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자면, 이것은 15장에서 사람들이 바다 곁에 서서 잔잔하고 잔잔해진 모습을 예상할 뿐만 아니라,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21장 1절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악의 바다와 혼돈이 제거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로운 창조 행위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생각은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를 일으킬 바다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잠잠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간략히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5절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천둥과 번개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소리가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출애굽과 시내산에 대한 또 다른 암시는 신현을 분명히 나타내며, 4장이 또한 심판하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장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6장부터 시작되는 일의 일부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세우면서 이 창조물과 사악한 인류를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6-8절의 다음 그룹, 즉 네 생물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묵시적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물의 특징을 지닌 생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자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는 황소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은 인간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보입니다. 날개는 모두 6개 있습니다.

그들은 온통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생물들이군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최고의 묵시적 상징입니다.

분명히 요한은 에스겔서 1장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겔서의 생물에 관해 읽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섯 날개 등의 언어 중 일부는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이 과거의 다른 선지자들과 연속되는 것임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전임 선지자들을 활용하여 장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일종의 맨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5장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비추어 글을 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은 요한이 구성한 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좌가 중앙에 있고, 넓어진 동심원 안에 24장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 밖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장로들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과 이사야의 배경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네 생물을 24장로와 마찬가지로 천사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내거나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찬양과 끊임없는 찬양,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경배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좌. 제기될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는 왜 4개인가요? 상징주의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도 그 엄격한 수학적 가치나 수치적 정확성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 4가 지구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생물은 땅의 네 모퉁이와 같은 것으로서 이 네 생물이 아마도 모든 창조 질서를 대표하는 하늘의 천사적 존재일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모든 창조물, 모든 생물, 그리고 현재 이 네 생물로 대표되는 모든 생명의 하늘에 있는 대응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의해 암시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자이고, 한 사람은 송아지이고, 한 사람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독수리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생물 창조의 전체 스펙트럼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생물은 끊임없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대표하며, 흥미롭게도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일어날 보편적인 찬양과 예배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이의를 제기하는 현 지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요점은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온하늘, 즉 천국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 하늘이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런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예배에서 말하고 표현하는 내용을 정확히 몇 군데 묘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부터 읽어보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이것을 행할 때 24장로들이 옆드려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나이다 창조되었고 그것들은 그 존재를 가지고 있다.

즉, 요점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적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즉, 예배에 대한 관점과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 잠시 묵회할 수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의 피조물이 와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예배를 먹으며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올바른 예배 노래를 부르고,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못해서 실망하여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 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그분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숭배함으로써 자아를 높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취와 개인적인 성취를 찾기 위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숭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오직 그분이 그럴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 이시며,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의 지상 현실을 초월하는 참된 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실제로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논쟁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정말로 합당한 분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지상 현실을 초월하는 참으로 현실적이고 참된 비전으로 시작됩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 다음 4장과 5장은 땅이 다툼을 벌이고 땅이 저항을 받는 곳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 땅에서 성취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천국에 합류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비추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요한계시록이나 1장에서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이다. 세기이든 다른 어느 때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논쟁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데 하늘에서 동참합니다.

또한 4장과 5장은 이러한 예배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의 모든 우상, 즉 오직 하나님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와 주권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전복시키며, 우리에게 예배와 예배를 드리도록 일깨워줍니다.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어떤 집단이나 국가나 단체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합당하신 예배와 충성이 다른 아님 우상 숭배임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에 대한 몇 가지 다른 흥미로운 점입니다. 우선, 현대의 대중적인 관념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폭로하기 위해, 저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질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라는 생각을 반영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는 한, 당신이 그 개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인데, 그들이 왕좌 앞에 면류관을 놓는 곳입니다. 왕좌 앞에 면류관을 놓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4장로입니다.

24장로는 누구인가? 그들이 천사적 존재라는 것이 맞다면, 신약성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면류관을 던지거나 그들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이나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지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여기 4장에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개념이 부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발 앞에 면류관을 던지는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들인 24장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는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면류관을 던지신 분께 경배하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이것이 미래에도 일어날 일을 일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점은 4장이 21장과 2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4장에서 24장로가 부르는 마지막 찬송이지만, 생물들이 부르는 찬송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찬송은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존재하였나이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나중에 말했듯이, 무지개의 출현은 대부분의 주석이 창세기 6장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창조에 대한 그분의 헌신을 상징하는 홍수 후의 무지개를 암시한다면, 나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로 찬양받고 경배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활동, 특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로운 창조를 수행하실 만큼 충분히 능력이 있고 강력하시다는 사실을 예상하거나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고 다시 이것은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무지개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배할 가치가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창조를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분의 하늘에 있는 수행자들은 그분께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분의 주권을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자, 만물의 주권적 창조자로 인정합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5장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4장은 5장에서 찾은 내용의 배경을 제공하거나 설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5장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은 4장이 시작하는 것과 같은 보좌인 보좌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요한은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가 언급한 사람이거나 4장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이제 4장에서 그랬듯이 5장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는 John이 보고 지금 기록하는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각화하기 위해 눈앞에 굴러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양면에 글이 쓰여 있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울고 또 울었고, 아니면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라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도다 그분은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섰고 네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싸서 서 있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가 나아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것을 받으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라.

각각 마음이 있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보고 들었는데, 그 수는 수천에 천, 만에 만에 달하는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네 생물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따라서 5장은 우리가 말했듯이 4장의 연속이지만 4장의 클라이막스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4장이 5장에 대한 설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이 추진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4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 두 장의 주요 초점이다. 우리는 둘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4장의 동일한 이미지 중 일부는 우리가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을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을 읽으면서 네 생물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24장로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환경, 즉 하나님의 보좌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추가 특징이 5장의 환상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새로운 특징이나 등장인물은 책이나 두루마리와 양입니다.

이것이 5장의 두 가지 초점입니다. 두루마리 즉 책과 요한이 본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시작됩니다.

분명히, 이 장을 읽는 제정신의 독자라면 누구나 이 두루마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은 왜 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계시나요? 오른손은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왜 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계시나요?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왜 중요한가요? 우선, 이 이미지는 아마도 두루마리의 이미지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익숙했을 여러 두루마리와 문서에서 배경 또는 여러 배경을 가질 수 있었지만, 양면에 쓰여진 문서와 같이 비문 이나 유언장, 유언장 같은 것 말이지요. 요한의 두루마리와 유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요한의 두루마리가 주로 에스겔서 2장의 내용을 회상합니다. 여기서 9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에스겔 2장과 9절입니다. 이는 에스겔의 왕좌실 환상의 일부입니다. John이 그리는 1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2장 9절에서 나는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해 뻗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는데, 그가 내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들어보세요. 양쪽에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양면에 글이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는 요한의 두루마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일곱 인이 있는데 그 앞에는 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이 말을 주로 애도, 경고, 재난의 말, 즉 심판의 주제와 연관시킵니다. 요한은 두루마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리스-로마 세계에는 두루마리에 대한 모든 종류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의 또 다른 구약 배경에서 다니엘은 봉인된 두루마리, 분명히 봉인된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오른손에 양면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 가지 대중적인 개념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이 두루마리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봉인되는 유언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성서를 펴고 그 내용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다른 유형의 두루마리나 문서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고 주석을 읽어서 다양한 유형의 설명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다시 한번 주요 모델이 에스겔 2장과 아마도 다니엘 12장에서 나온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한 요한은 그리스-로마 세계와 공명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일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비슷한 것을 제안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루마리에는 단순히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모두 가져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4장의 쟁점 중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늘의 장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곳, 온 하늘이 예배하는 곳, 그것이 땅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실현되는 곳인지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두루마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루마리로 상징된 그 계획을 주권적으로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나는 우리가 문자적인 두루마리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중에 어린 양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문자 그대로 양이 올라와 두루마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그러므로 두루마리는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을 통해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종류의 다음 인물이 등장합니다. 천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적어도 혼자서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사가 묵시문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제안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묵시록을 읽고, 선견자가 가졌던 비전의 관점에서 천사들이 묵시록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특정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종종 천사 같은 존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두 번이나 천사 같은 존재에게 몸을 굽혀 숭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사는 이 환상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해결해야 할 5장의 주요 문제를 분명히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목소리는 질문의 형태로 주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니,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 쟁점은 여기에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적인 창조자로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두루마리를 쥐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 세상에서 누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간단히 꺼내어 펴서 그 내용을 밝히고 그 책을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움직이나요? 이것이 주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천사가 누가 합당한가라고 말할 때, 요한이 누가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생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펼쳐서 읽고 또 굴린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오, 그거 흥미로웠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말해주지'라고 말하세요. 그 개념은 봉인을 풀고 읽음으로써 누군가가 그 내용을 공개하고 실제로 두루마리의 내용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처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은 합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전 우주를 탐색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은, 누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에서 대답하는 주요 질문입니다.

이것이 제기되는 주요 문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이, 권세와 능력의 상징인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쥐고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가실 권세를 가지신 분에게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크롤한 다음 열어서 내용을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존은 그렇게 할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전 우주를 탐색합니다.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John이 자신의 비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단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비전에 참여하게 되고 여행을 떠납니다. 본문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지만, 단순히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그가 온 우주를 여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검색 범위는 완전히 철저합니다. 그분은 하늘로 가십니다. 이 보좌실, 하늘에 있는 보좌실을 포함한 모든 하늘로 가십니다.

그분은 모든 하늘에 다니시며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게다가 땅 아래도 두루 살피십니다. 즉, 이는 John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합당한 사람을 찾는 그의 검색은 완전히 철저합니다.

요점은 이러한 위치가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점은 이것이 보편적이고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내가 하늘 보좌를 차지함, 하늘 보좌실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걸어가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펴서 그 내용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살살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이는 비전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요한이 천국에서 누구도 찾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모든 종류의 고귀한 천사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요한은 천국에서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이 모든 천사 존재들, 즉 이십사 장로들과 네 생물과 우주의 다른 모든 하늘 부분을 포함하여 하늘 영역에 존재하는 다른 고귀하고 강력한 천사 존재들 중에서 요한은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도 두루마리를 펴기에 충분한 능력과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할지라도 요한은 책을 펴는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세 번 강조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봉을 떼고 그 내용을 움직이기에 합당하고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요한은 울고 또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어로 된 구성은 다소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존이 구석에서 훌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골적으로 울부짖고, 두루마리를 펴줄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절망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John은 두루마리를 열어줄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질문은, 나는 항상 이 글을 읽었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일종의 묵시문학의 흔적으로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John은 이야기에 약간의 긴장감과 흥미를 더하기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존은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면,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또 찾지 못했다면, 그는 온 우주를 구석구석까지 뒤져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가치있는 하나.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이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런 변호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면, 요한이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이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만일 요한이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하면 교회의 고난은 헛되고, 그들의 제사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사하는 자들도 헛될 것입니다. 요한이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4장에서 우리가 소개한 24장로 중 한 사람이 좋은 소식으로 요한의 눈물을 방해합니다. 즉, 합당한 분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24장로 중 한 사람인 24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John은 이것에 대해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연설에서 존에게 누군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John은 아직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는 단순히 합당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창세기 49장과 9절, 이사야서 11장과 1절의 구약 이미지를 사용하여 메시아 지파, 유다의 사자 왕과 사자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천사가 말한 이 사자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사자이다. 다시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이김에 관한 2장과 3장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를 승리했거나 정복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이 사자는 영어 번역에 따라 예수를 메시아로 명백히 언급하는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펴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된 인물로서 힘과 권세, 아마도 군사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예상할 수 있듯이 그는 힘과 권세를 과시하여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승리할 수 있으며, 또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봉을 떼어 그 내용을 밝히고 그 내용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듯이, 두루마리에는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입니다. 신약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장로는 연설을 통해 요한을 소개했으며, 단순히 그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에게 누군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이미 승리했으며 아마도 군사적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킵니다. 승리와 힘. 이 사람이 이겼고 요한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요한이 다음에 보는 것은 유다 지파의 정복하는 사자가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요한이 돌아섰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한 채 서 있는 어린양을 봅니다. 그는 마치 도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양을 봅니다. 문자 그대로 본문에서 그것이 학살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는 사실은 존이 학살한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말은 어린양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요한 앞에 살아 있지만 실제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전히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존은 자신이 학살을

당했거나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존과 해결책을 듣는 사이의 역설이나 긴장감입니다.

해결책은 요한이 유다 지파에 이긴 사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돌아섰을 때 사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반대의 것을 본다. 그분은 어린양을 보셨고, 더욱이 죽임을 당하거나 도살된 어린양도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 배경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양이요, 또한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 곧 죽임을 당한 어린양일 것이다.

그러나 역설은 놀랍습니다. 이제 양처럼 보이는 사자. 이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보게 될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며,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관해 논란이 되어온 다른 두 부분을 이해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국 학자 Richard Baucom은 이 주제를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요한이 듣는 것과 요한이 보는 것이 병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John은 John이 본 것이 바로 뒤따르는 것을 듣게 되며, 종종 그가 본 것은 그가 들었던 것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듣는 것은 정복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지만 그때 그가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이들은 서로 다른 두 존재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지만, 그가 보는 것이 그가 들은 것을 더 자세히 해석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이긴 사자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보니 유다의 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을 본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린양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두루마리를 받기에 합당합니까? 그것은 그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이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어린양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고,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분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 계시므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고 그 내용을 밝히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제국과 달리 요한은 정복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제국은 칼로 정복하고, 폭력으로 정복하고,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대조적으로 요한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복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을 통해 승리하셨고, 그분을 옹호하시는 것은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또한 그의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장과 3장을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어린 양은 충실하고 고통받는 증언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실한 희생적인 증언을 통해 교회는 어린양이 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이야기와 장면을 전달하는 지시 동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7절에서 5장의 절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의 어린 양;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니라. 이것이 장면의 클라이막스이다.

사실, take 동사의 동사 시제는 그리스어로 완료 시제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는 저자가 어떤 활동을 전경에 두고 다른 모든 것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 동사 take의 그리스어

완료형을 사용하여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John은 이것이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이 5장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전체 비전이 이끌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가져갈 수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희생의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어린 양은 이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제기하는 질문 중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분은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 하나님이며, 심판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계획인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냥 걸어가서 그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만큼 합당하고 적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이 흥미롭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일종의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나 그와 유사한 흥미로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갑자기 군중이 헤어지는 모습과 일부 전사가 왕좌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밖에서 오는 어린 양을 보지 못하거나 단순히, 아, 저기 서 있는 그 사람이 그리워요.

그리고 어린양이 오셔서 보좌실로 들어가십니다. 대신에 어린 양은 보좌 중앙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요한이 천국을 포함하여 모든 곳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John이 놓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하늘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마치 그가 어린 양을 놓친 것처럼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됐든 그는 어린 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여기저기 다 살펴봤어.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두루 살펴보셨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좌 앞으로 걸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빼앗을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미 온 하늘을 살펴보았고 가장 높은 천사라 할지라도 그 두루마리를 받기에 합당치 아니할 때 보좌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보좌에서 나와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는 이 사람은 누구냐? 내 생각에 요점은 이것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람은 우주의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높고 고귀하고 가장 강력한 천사적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를 갈라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열의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설명되겠지만, 이 분은 독특하고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고 딜레마가 해결되었으니 누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가? 이제 합당한 사람이 발견되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를 가져가는 사건이 일어났고, 딜레마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나머지 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이 독특한 사건에 반응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그것을 펴고 그 내용을 실행하실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한 하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9회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계속됩니다.